

이우한글학교 아.이.스.크.림. 세 번째 그림전시회가 문화원에서 열려



12월 7일 오후 4시 이우한글학교 아.이.스.크.림. 세 번째 그림전시회 '나에게'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3층에서 막을 올렸다. 아.이.스.크.림.은 이우한글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각종 박람회, 한인모임에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익성 공연과 전시회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나에게'로, 큐레이터와 작가는 이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2016년과 작별하는 동시에 잠시 걸음을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그림 작품들 이외에도 구성원들이 우쿨렐레, 하모니카, 색소폰 공연 등 특별한 무대도 준비하였다.



한석희 대한민국 주상하이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술을 비롯한 예술이 갖는 힘은 우리의 내부의 순수한 세계를 지켜주는데 있다”면서 “세월이 흐름과 함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잃어가기 마련인 내면의 감성과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과 추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원을 말했다. 총영사의 칭찬을 받은 이번 전시의 작품과 '나에게'라는 주제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신년을 맞이하고 지나간 일을 회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생을 나아가는 데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14회 한·중·일 문화인서예전



상하이시대학서법교육협회, 한국서문회, 동경학예대학서도연구회 주최,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이 후원한 제 14회 한·중·일 문화인 서예전이 2016년 12월 17일 문화원에서 막을 열었다. 이번 전시의 작품 수는 총 146점으로 그 중 중국작품이 56점, 한국작품이 40점, 일본작품이 50점이다. 작품은 서예, 전각, 문인화, 각자 등 여러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서체로는 전서, 예서, 해서, 초서 형식으로는 족자, 마름모꼴 서화, 가로 폭 서화 등이 있고 한글과 일본 가타카나로 된 서예 작품들도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들이 있어서 실컷 눈요기를 할 수 있다. 출품한 서예가들은 교육자 위주의 문화인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는 세 나라 문화인들 사이의 성대한 예술 교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김진곤 원장과 각국 서예가 대표는 개막식에서 축하를 하였고, 서예작품을 문화원에 기증으로 선물하였다.



이번 교류전은 상하이시대학서법교육협회와 한국서문회로부터 1998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매년 한중 양국이 교대로 주최하고, 상하이와 서울에서 각각 전시를 진행하였다. 2005년에 일본 서예가의 가입으로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전시회와 서예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중일의 서예교육경험을 교류하여 서예예술의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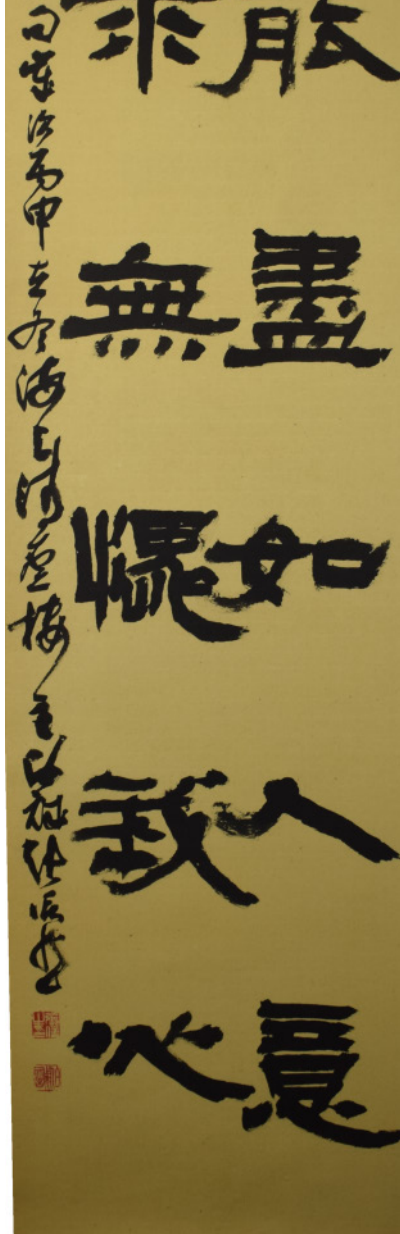
단체소개 및 대표작품

상하이시대학서법교육협회

상하이시대학서법교육협회는 저명한 서예교육가 黃若舟이 1985년 창설. 협회는 1998년 상하이주기첨예술관에서 〈한중문화인서예전〉을 개최하였고, 2000년 서울의 문화관에서 〈제 2회 한중문화인서예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한중 서예예술의 교류를 위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会长 瞿志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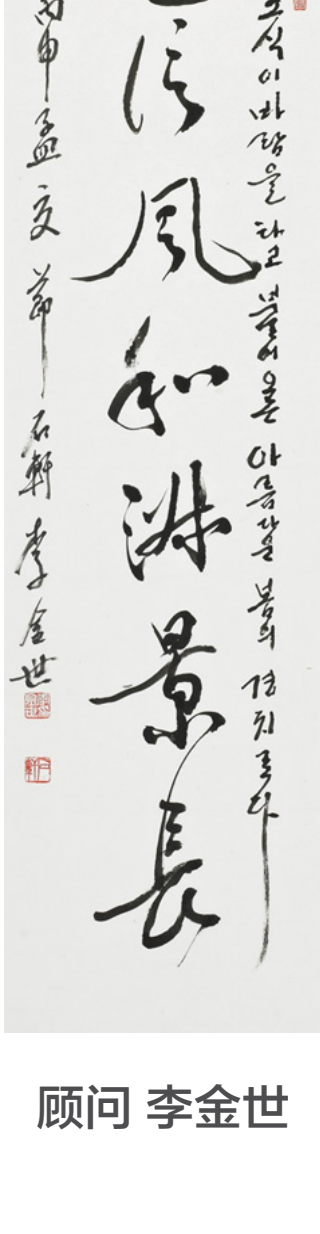
常务副会长 张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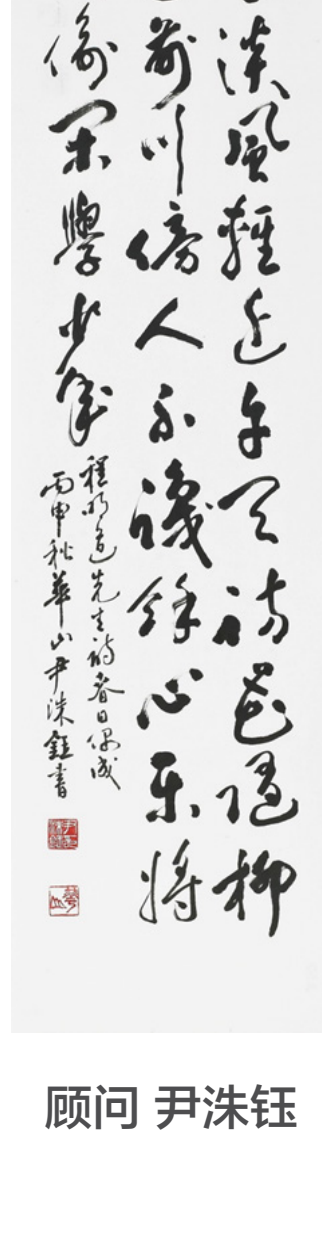
副会长 王延林

한국서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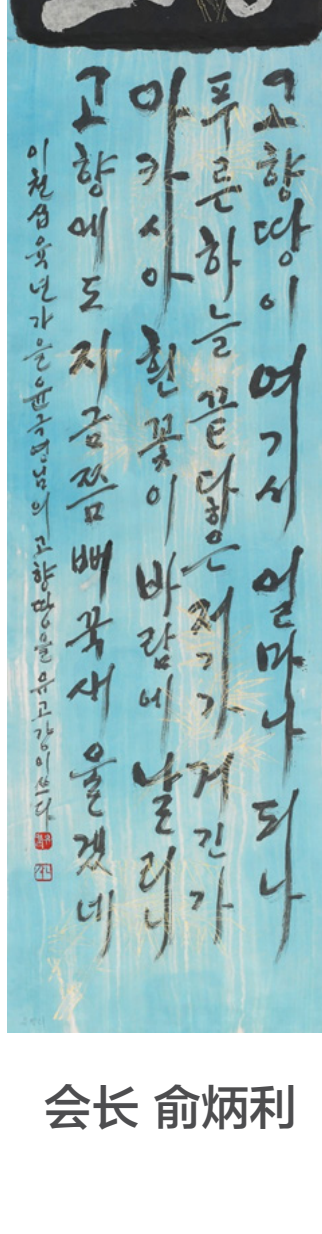
한국서문회는 1996년 4월 3일 성립되어 서예, 전각, 문방 등에 종사하는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교류와 각종 개인전, 연합전람회, 국제전람 개최를 통하여 구성원 자신의 예술세계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로 성립되었다. 1997년 12월 21일 이청화회장과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한국서문회와 상하이시대학서법교육협회의 격년으로 한중 교류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顾问 李金世



顾问 尹洙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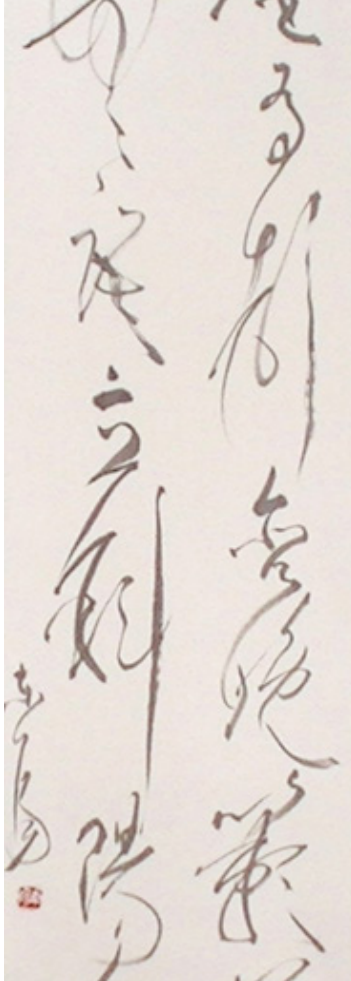
会长 俞炳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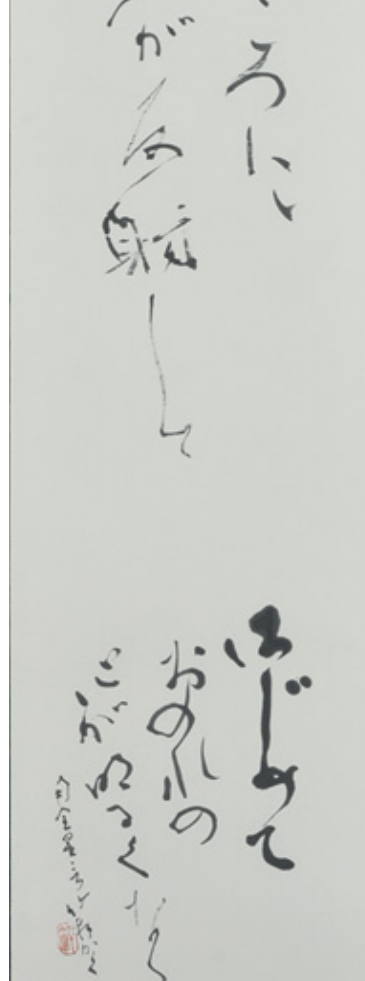
副会长 沈柳龙

동경학예대학서도교육연구회

동경학예대학서도교육연구회 다수의 구성원들은 동경학예대학의 졸업생 또는 일본대학의 교수이다. 2005년 삼국전시회의 대열에 합류하여 한중 양국과 함께 동아시아 서예전을 개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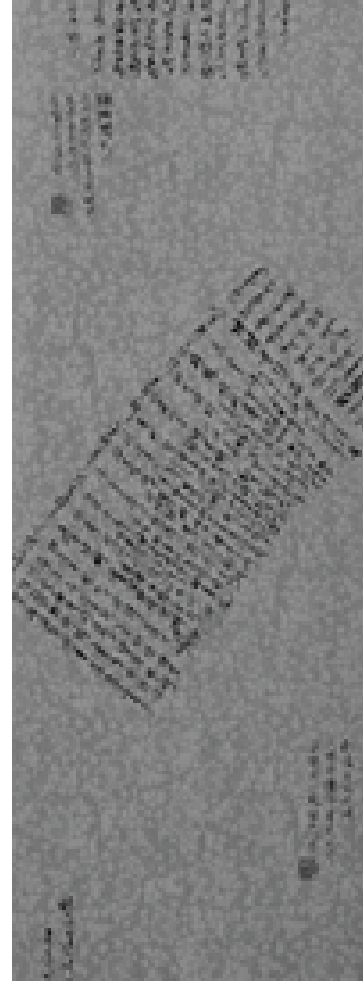
名誉会长 加藤祐司



会长 长野秀章



加藤泰弘



金敬顺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 김성국 [이별가] 중국초연

경기민요에 국악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린 한국현대작품에 현지관심 잇따라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임재원)의 2016년 상주작곡가 김성국(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수)의 작품 ‘이별가’가 12월 27일 중국 상하이음악학원 허뤄팅 홀에서 중국초연되었다.

201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완성도 높은 창작곡을 개발하고 작곡가와 연주자 간의 보다 긴밀한 유대감을 확립하기 위해 국악관현악단 최초로 올해 ‘상주작곡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월 작곡가 김성국·정일련은 악단 상주작곡가로 선정되고 함께 혁신적인 국악관현악 창작과 최상의 연주를 위한 다양하고도 진지한 실험을 지속해왔다.



특히, 김성국은 현대적인 어법을 선보이면서도 전통음악의 깊은 맛을 놓지 않는 대표적인 국악 작곡가로 지난 10월 29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주최 상주작곡가시리즈 공연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최수열)과 서울비르투오지 예술감독이자 서울대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협연으로 ‘이별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물과 감동을 끌어냈다.

김성국의 작품 ‘이별가’는 2014년 4월 16일 한국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보며 작곡가가 느낀 감정을 한국의 경기도 지역의 민요 ‘이별가’의 선율적 내용을 차용하여 국악전통악기의 선율과 방식으로 풀어낸 곡으로, 이번 중국 초연 역시 바이올린 여제 이경선(현 서울대 교수)이 협연자로 섰다.



이에, 작곡가 김성국은 이경선과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를 위해 특별히 ‘이별가’를 새로이 현악반주로 편곡하였으며, 전통 국악곡인 이별가가 서양악기들이 어떻게 해석될 지에 음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작곡가 김성국은 ‘이별가’ 중국초연을 앞두고 “이별가는 이 시대에 죽음으로 인하여 이별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의 노래이며, 특히 돈과 권력의 논리로 여기저기서 희생당하는 힘없는 자들을 위한 노래이다. 첫 부분은 욕망, 두 번째는 이별을 담았다”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콩쿠르 우승 및 몬트리올 콩쿠르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콩쿠르 입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은 상하이연주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중 양국이 서로 돕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하나의 상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이곳 상하이에서 연주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번 공연 확정 후 김성국선생께 부탁하여 특별히 현악합주로 개작을 부탁드렸다. 모두가 가슴이 아픈 이 시대에 중국 상하이에서 울려 퍼진 ‘이별가’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전했다.

서울비르투오지 예술감독 이경선을 필두로 서울대강사, 국내주요 오케스트라 수석, 국내음대 젊은 교수진으로 구성된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는 2015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실내악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았으며 전 멤버들의 뛰어난 테크닉과 완벽한 호흡, 정수기를 연상시키는 깨끗한 음색으로 “한국의 이무지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동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한 해의 끝자락, 2017년 한 해의 시작을 앞둔 지금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주최측을 통해 관람예약 가능했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28일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도 공익성 공연을 선사하고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리한철처코리아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의 공동주관으로 한중우호의 밤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콜라보레이션 (합작)”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둔 지금 수교이래 가장 어려운 문화교류적 담보 사태에 국면한 한중관계를 예술과 음악으로 녹여낸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3강좌

문화원 2017년 문화강좌 강사 위촉식



문화원 가야금강좌 수료식



주상하이한국문화원
驻上海韩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한·중 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을 잇는 역할을 하는 곳, 한·중 양국민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곳,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다채로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언제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화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주소: 徐汇区漕溪北路396号汇智大厦裙楼2 ,3F

대표전화: 021-5108-3533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 9, 11호선 徐家汇역 1번 출구; 1, 4호선 上海体育馆역 8번 출구